



뒷간과 화장실 미학 ...

주요 문화 발상지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이야기

중국

주요 문화 발상지 중 하나인 중국에서 화장실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 화장실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유물들은 대부분 소실(消失)되어 남아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아 있는 유물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한(漢)나라 시대의 소변 항아리를 들 수 있다. 고대 중국사람들은 이 소변 항아리를 호자(虎子)라 칭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 중국에는 린(麟)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었다. 겉모양은 실재(實在)하는 기린과 흡사하지만 사람드른 이 상상 속의 동물을 짐승의 왕으로 추앙(推仰)했다. 그들은 기린이 나타나는 것은 성인(聖人)이 탄생할 징조라고 믿었고 이 성(聖)스러운 짐승은 호랑이가 앞뒤로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리면 그 속에 오줌을 누었다고 한다. 이 전설의 영향으로 소변기는 호랑이 새끼의 머리 모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호자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변기

주나라(周, BC 1027~771) 시대에는 위유(威有)라 칭한 변기가 있었다. 위(威)는 호자와 같은 변기를 뜻하는 자이고, 유(有)는 구멍을 꿇다는 의미로서 구멍이 파진 모양의 변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漢, BC 202~AD 8)의 무제(武帝)는 옥으로 된 변기를 사용했으며 일이 끝나면 시종(侍從)이 뒤척리를 하였다고 한다. 무제는 자

신의 변기를 두는 곳을 현중(軒中)이라 하였다. 이때 현(軒)은 나중의 직(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제 때 흉노(匈奴)의 사신(使臣)이 와서 고하기를 "흉노가 민(民)을 쳐서 왕의 머리를 음기(飲器)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 음기를 두고 술잔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호자 즉, 소변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마시는 것이면 주배(酒罇)나 기타 다른 말로 표기했을 터이니 소변기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 사신의 말은 적국 왕의 해골을 요강으로 사용했다는 뜻이 된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또한 규방(閨房)마다 변기를 두고 이 그릇을 청유(淸楡)라고 불렀다. 삼국 위나라(魏, BC 220~265) 시대에는 나무를 파서 변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현대 중국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변기인 마통(馬桶)의 시초가 되었다. 이 변기는 낮에 사람들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었다가 밤에는 침상 옆에서 사용되었다. 진(晉)나라, 당(唐)나라 시대의 궁정과 귀족 부호들은 일상 생활이 화려해서 변기도 모두 칠보(七寶)로 장식했다.

궁중의 변기

북경의 만수산(萬壽山)에는 청조(淸朝)의 궁전이 있다. 이 궁전에 변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紛紛)하다. 다만 이후 잘 발달된 중국의 변기 문화로 미루어 봐서 이때 변기가 사용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왕실에서 사용된 변기는 의자식으로 된 것으로 그 밑

지난 몇 년간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고속도로 곳곳의 휴게소 화장실과 전국 여러 곳의 화장실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나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인 3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화장실에 대한 역사와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한다. 본내용은 '호모토일렛(Homo Toilet)'에서 발췌하여 기술한다.(편집자)

에 호자가 놓여있다. 이는 유럽의 초기에 있었던 의자식 변기와 매우 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대체로 표주박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상자에 앉게 되어있었고 그 상자 속에 금속제의 분(盆)이 들어 있었다. 이 분은 은(銀)이나 동(銅)으로 만든 것으로 용무가 끝나면 종들이 그 위에 뚜껑을 덮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야외에서 갑자기 용변을 보게 될 경우에는 환관(宦官)이 황색의 유포제(油布製) 텐트를 사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여관이나 마마가 그 안에 들어가 손 씻는 물을 바치기도 하고 장방형으로 자른 종이를 부드럽게 비벼 뒤를 닦아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시중을 들었다. 용건이 끝난 후에는 양 끝에 아름답게 수를 놓은 손 닦는 수건을 여관이 바쳤다고 한다.

양자의 해골 변기

춘추전국시대의 일이다. 조나라의 양자(襄子)는 현명한 군주였지만 한번 화가 나면 그 기세를 막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한번은 양자가 지백(智伯)에게 공격을 당해 성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자는 굴하지 않고 갖은 지략과 용맹으로 오히려 지백을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전쟁에서 이긴 양자는 지백을 죽이고 해골의 살을 발라내어 요강으로 썼다. 지백을 섬기고 있는 예양이라는 자가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을 위

해 죽는다. 나는 지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결국 예양은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자객이 되어 양자의 성에 잠입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화장실이었다. 그는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양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예양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는 양자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예양은 굴욕과 참담함에 빠져 양자앞에 끌려 나왔다. 그러나 양자는 뜻밖에 예양을 그냥 살려주고 말았다. "목숨을 걸고 주군의 복수를 하려 했더니, 정말 충직한 신하로구나!" 예양은 양자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수치심과 모멸감을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예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변기를 옥좌로

'변기에 앉아 정무(政務)를 보는 왕'이라는 말은 비단 프랑스의 루이 14세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동양에서도 그런 특별한 취미를 가진 군주가 몇몇 있었다고 전해진다.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의 왕 한광(韓廣)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한광은 평소 DKHES 목제 변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 변기를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한번 앉았다 하면 여간해서 일어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고파도 일어서지 않고 변기 위에 앉아 식사를 했으며, 변기 위에서 음악을 듣고 독서를 즐겼다. 변기를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변기를 옥좌(玉座)로 삼았던 것이다.

기원전 1세기경 한나라의 무제 역시 변기에 앉은채로 대신이나 장군을 알현(謁見)했던 왕중의 하나이다. 물론 변





이 책은 고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국 문화권의 흥미로운 특징을 살피면서 화장실 밖의 문화까지 개관하여 미래의 화장실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구입문의 협의회 사무국
(☎ 031-226-7001)

기위에 앉아 정무를 본다든 것은 상대방에게 있어 그리 유쾌한 일이 되지 못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악취를 풍기는 것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발가벗은 왕의 모습 - 당시 중국 귀족들은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 을 보는 것은 아주 민망한 일이었을 것이다.

며느리의 효성

변기에 얽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 강남 상주(常州)의 한 마을에 노파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쌀로 밥을 짓다가 옆 집 색시가 불려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밥이 다 되었다. 노파는 며느리를 불렀지만 며느리는 집밖으로 나가버렸는지 대답이 없었다. 노파는 밥을 그릇에 퍼 담았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시어머니가 밥을 담아놓은 그릇은 밥그릇이 아니라 변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가운데 깨끗한 밥을 다른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리고 자신은 변기에 붙어있던 밥을 먹었다. 가난한 살림에 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어 지더니 대문 밖에서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 살펴보니 집앞 나뭇가지에 천으로 된 망태가 매달려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보니 그 속에 쌀이 두서너 되 가량 들어있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기뻐하며 그 쌀로 시어머니께 밥을 지어 드렸다. 나중에 다시 망태를 들여다본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깜짝놀랐다. 망태 안의 쌀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망태는 퍼내도 계속 차는 신기한 망태였다.

며느리의 효성에 감복한 하늘이 은혜를 내린 것이다.

민가의 변기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변기 문화 중에서 많이 남아있는 것은 역시 마통(馬桶)을 꼽을 수 있다. 호자(虎子)가 소변기라면 마통은 대소변 겸용의 실내 변기라고 할 수 있다. 마통은 높이 약 40센티미터 정도의 나무로 된 일종의 항아리로서 마치 자그마한 생맥주통처럼 생겼는데 대개 옷칠을 해서 붉은 색을 냈고 허리춤에 구리고 띠를 둘렀다. 뚜껑은 몸통과 같이 옷칠을 한 것도 있지만 때때로 금색의 장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마(馬)라는 글자에서 연상할 수 디스MSRJ처럼 마치 말 잔등에 탄 것처럼 앉아서 용무를 보게 되어 있다. 마통은 마자(馬子), 정통(淨桶), 변통(便桶), 마통아(馬桶兒)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어린이용 마통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많다. 지금도 중국의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아침 일찍 주부들이 마통을 가까운 개울가로 가지고 가서 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아낙네들은 대나무를 잘게 잘라 만든 솔로 그 속을 씻어낸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에는 매질 아침 종을 흔들며 마통을 비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받고 처리해 준다. 중국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중요한 혼수(婚需)로 반드시 마통을 챙겨서 가지고 간다. 그 속에 빨간 칠을 한 삶은 계란을 넣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시집식구나 시집간 마을의 처녀들 중에서 이 계란을 먼저 얻은 처녀가 일찍 시집을 가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미신(迷信)이 있기 때문이다.